

내일 무주서 '전북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 그대들이 갖고 있는 '끼' 뽐내라

동아리 공연·키트 체험마당 등 1~2부로 나누어 비대면으로 진행 청소년 문화축제 '꿈' 21일 개최

무주지역 청소년들의 문화향연이 청정지역인 무주에서 펼쳐진다. 무주군은 14일 오후 1시부터 무주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및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맘껏 발산하게 될 끼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전라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된다.

여성가족부와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무주지역 청소년어울림마당은 무주 관내 청소년(9세

~24세)과 청소년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과 키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펼쳐지는 장으로서 도내 일부 지역에서 8회에 걸쳐 진행되는 행사다.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이번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1부 동아리 공연과 2부 키트 체험마당으로 진행된다.

각 학교별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으로 학업에 지친 지역 청소년들이 상호 소통함과 동시에 문화적 감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롭고 형식이 없는 청소년들만의 유쾌한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무주북박한울스쿨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난타공연이 있으며, 각 청소년 동아리 팀들이 출연해 댄스와 밴드로 분위기를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청소년수련관 벨리댄스 동아리 벨리스타와 댄스팀 데이지, 무주중 락밴드는 그동안 갖고 닦았던 실력을 선보이게 되며, 무주중학교 연극부원들은 자신들의 연기 실력을 뽐낼 예

정이다.

2부 비대면 체험부스에서는 양모실로 무지개와 구름을 표현하는 타피스트리 만들기(직물아트)와 바다 켈 캔들 만들기, 목화솜을 이용해 예쁜 나무 화분만들기로 관심을 끌 예정이다.

전문 MC 섭외 대신에 무주군 동아리 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청소년들을 MC로 섭외한 점도 특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펼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다양한 체험활동과 청소년 동아리 공연으로 청소년의 문화감수성을 높이고 건전한 놀이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청소년수련관은 오는 21일 무주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을 비롯한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청소년 공연팀들의 경연대회인 제9회 무주군 청소년 문화축제 '꿈'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금강하구에 위치한 금강철새조망대 9층 전시실에서 13일부터 업사이클링 환경작가 김덕신 초대전 '부스럭 부스럭'이 열린다.

## 폐비닐 소재로 우리 전통색 표현

환경작가 김덕신 초대전 '부스럭 부스럭' 금강철새조망대서

금강하구에 위치한 금강철새조망대 9층 전시실에서 13일부터 업사이클링 환경작가 김덕신 초대전 '부스럭 부스럭'이 열린다.

업사이클링(up-cycling) 아트는 단순한 리사이클링(recycling, 재활용)을 넘어 폐품을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여 예술로 승화하는 것으로 김덕신 작가는 섬 지역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바다 쓰레기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 지난해 근대역사박물관 '시민 열린 갤러리'에서 작품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는 폐비닐을 소재로 비닐만의 색상 그대로 우리 전통색인 오방색을 표현해 들꽃과 향아리를 모티브로 한 작품 40여점을 전시한다.

이번 '부스럭 부스럭' 전시회는 내년 2월까지

지 계속돼 추운 겨울 가족들과 함께 할 실내 여행지를 찾는다면 관광도 하고 예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금강철새조망대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다.

김덕신 작가는 "관객들이 내 작품을 보면서 자연과의 조화, 공생 가능성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통해 생명에 대한 의미를 사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회가 열리는 금강철새조망대는 AI에 따른 영향 및 기후변화로 인한 철새 감소 등으로 인한 침체를 극복하고 최근 기후변화 체험 교육 및 기후위기 대응 의식개선·기후행동 실천 운동에 역량을 집중해 '금강미래체험관'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 판소리 이론,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국립민속국악원, 수강생 모집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예음헌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반인 국악강좌의 실기 수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 판소리 이론 강좌를 신설해 오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예음헌에서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판소리 이론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전통예술의 인문학적 공감을 풀어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 이론 강의와 판소리 시연도 감상할 수 있다.



송미경 한국항공대학교 인문자연학부 교수 등의 '판소리 춘향가의 더듬을 따라' (11.17),

김영은 국악방송 사장의 "판소리 풀어서 듣기"(11.24),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장의 '알쓸신관(알면 쓸데있는 신비한 판소리)'(12.1), 유영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21세기에 만나는 춘향'(12.8) 등 각 주제를 강의의 틀을 들어봄으로써 전통예술의 이해를 확장하고 국악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수강신청기간은 오는 16일까지 정원은 매주 50명(날짜별)으로,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되고, 수강료는 무료이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JEIL 제일건설**

남원에서 퍼스트  
엄마들의 베스트

남원 | 오뚜그란데 | 퍼스트시티 |

계약금 1,000만원 | 중도금 무이자

11.19 GRAND OPEN | 063.636.9802

## 사진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적상사고 봉안 재연

무주사진가협회 기록사진전

조선왕조실록 적상사고 봉안 재연 기록사진전이 오는 12월 31일까지 무주군 무주읍 김환태문화관 1층 로비 특별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사진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무주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사고의 고장이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고 조선의 역사를 지키는데 기여한 사실을 후손들과 공유해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적상사고'와 어우러진 적상산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11월 개최됐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 재연 행사 때 촬영한 사진 등 40여 점이 전시된다.

무주사진가협회 이윤승 회장은 "무주관아에서 봉안사를 맞이하기 위해 나가는 행렬, 적상산사고로 봉안하기 전 무주관아에 잠시 보관하는 모습, 적상산 사고로 실록을 봉안하기 위해 이동하는 행렬, 적상산 사고 봉안과 고유제 재연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시해 사진만 봐도 봉안의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이번 전시회가 조선왕조실록을 품었던 적상산사고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전시 첫날인 지난 11일 김환태문화관 특별전시실을 찾은 황인홍 군수는 "무주가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계승하려는 의지와 모습을 공유하는 자리라 더 의미가 있다"며 "이 전시회가 지난 가치만큼 모든 이들에게도 큰 감동으로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지난해 11월 무주군청과 전통테마파크 일원에서 적상산 사고(史事)실록 봉안행렬 및 봉안식 재연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재연행사는 무주문화원이 문화관광부와 한국

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한 2019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1억 1천 8백여만 원의 예산 확보)되면서 진행하게 된 것으로, 춘추관에 보관 중이던 조선왕조실록을 적상산사고로 옮겨와 안치하던 과정을 재연한 것이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 이안 재연(묘향산사고에서 적상산사고로 옮겨와 안치하던 모습)에 따른 학술용역 최종 보고를 마무리함에 따라 복식과 의장 고증 자료를 토대로 내년 반딧불축제 행사 때 이안행렬을 재연한다는 계획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악과 트로트의 만남'

24일 김제문화예회관에서

김제문화예회관에서 오는 24일 오후 7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프로그램으로 '국악과 트로트의 만남' 공연이 펼쳐진다.

'국악과 트로트의 만남'은 국악인 전영랑과 트로트 가수 한소민이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해 선보이는 공연이다.

전영랑은 경기민요 대통령상 수상자로, MBN '보이스퀸' 소리 엄마로 화제를 모았던 소리꾼으로 나는 열일곱 살이예요, 빈대떡신사, 비나리, 배 띄워라 등 민요와 국악의 절묘한 조화를 선보인다. 또한 한소민은 트로트가수와 뮤지컬, 연극활동 등 만능 엔터테이너로 '목포행 완행열차', '내 나이가 어때서', '트로트 메들리' 등 유명한 트로트곡을 준비하여 김제시민과 흥겨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여파로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로 진행된다. /김제=곽도태 기자